

“올해 정시 문과는 수학 나형, 이과는 국어가 승부처”

정시 모집... 대학들 어떻게 뽑나

올해 수능 전과목 변별력 확보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도 반영
“모집단위·대학별 가중치 살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체 점 결과가 나오에 따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화된다. 올해 수능 수학나형이 특히 어려웠고, 국어 역시 전년보다는 쉬웠지만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인문계는 수학나형, 자연계는 국어 성적에 따른 유불리가 나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이들 영역별 가중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서울 소재 각 대학에 따르면, 인문계열 수학영역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은 서강대로 수학 영역 반영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9%에 달한다.

서강대에 이어 성균관대·중앙대·서울대·한양대(경영 등)가 40%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고려대(35.7%), 서울시립

〈2019~2020 정시모집 선발인원 변화〉

대학	정시선발인원		차이
	2020 학년도	2019 학년도	
건국대	1191	1171	20
경희대	1459	1390	69
고려대	670	612	58
동국대	842	823	19
서강대	473	320	153
서울대	684	684	0
서울시립대	635	613	22
성균관대	1128	710	418
숙명여대	697	733	-36
연세대	1136	1011	125
이화여대	783	694	89
중앙대	1155	1145	10
한국외대	1245	1185	60
한양대	867	852	15
홍익대	912	940	-28
계	13877	12883	994

/자료=진학사

대(경영 등)·경희대(경영 등)·숙명여대

(인문 컴퓨터 등)(35%), 연세대(33.3%), 한국외대·한양대(행정 등)·숙명여대(행정 등)·서울시립대(행정 등)·건국대(경영 등)(30%) 등이다.

반대로 경희대(국어국문 등), 숙명여대(행정 등), 건국대(영어교육 등), 동국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은 수학 영역 반영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연계열 중 국어영역 반영비율을 보면, 고려대 가정교육이 35.7%로 높고, 이어 숙명여대(35%), 서강대(34.4%), 서울대(33.3%), 고려대 의과대학(31.3%), 성균관대·중앙대·숙명여대(화학 등)·동국대·이화여대(25%) 등이고 연세대는 22.2%를 반영한다.

반면 한양대·경희대·건국대(수학교육 등)·서울시립대·건국대(수의예 등)(20%), 홍익대(16.7%), 숙명여대 수학과(15%) 등은 국어 영역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재수생 응시자가 많고 계열별 수능 변별력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재수를 감안한 상향 지원 경향도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문과에서는 수학, 이과는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대학별 가중치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학생수 5만명 감소와 이과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지는 등의 요인으로 심리적으로는 재수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시에서 안정지원보다 소신지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성적 발표 후 본인의 성적을 통해 지원가능 대학과 모집단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도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이 확보되어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소신지원이 전략일 수 있고, 중위권 수험생들은 소신지원과 함께 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역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반영비율도 비슷해 탐구영역 환산점수나 각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마지막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자연계열 상위권은 수학 뿐 아니라 탐구영역 과목별 백분위 성적 기준 고득점 여부가 합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다수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자.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나군은 학생부 성적을 10% 반영한다. 건국대는 전 과목을 활용하므로 학생부 영향력이 가장 크다. 동국대는 교과성과와 함께 3일 이하의 미 인정 결석일수 일 때 봉사(30시간 이상)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일반전형 기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1만3877명으로 전년(1만2883명) 대비 994명(7.7%) 증가해 정시 합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균관대는 1128명 선발로 전년(710명)보다 무려 418명을 더 선발하고, 서강대(153명), 연세대(125명)도 정시 인원을 늘렸다. 반면 숙명여대와 홍익대는 정시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각 36명, 28명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국대, 2020학년도 편입생 348명 모집

일반편입 281명, 학사편입 60명 선발

건국대학교는 2020학년도 편입학 전형으로 348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4일~6일까지다.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281명을 모집한다.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모집인원은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입학해 졸업한 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는 7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건국대는 2020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3~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고사 성적 40%와 1단계 필기고사 성적 6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 예술디자인대학은 필기고사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건국대 일감호 /건국대학교

모집인원과 계열별로 각기 달라 유의해야 한다.

필기고사는 지원자의 전공 관련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편입학 수능’으로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영어(40문항, 100점), 자연계열은 영어(20문항, 40점)과 수학(20문항, 60점)을 각각 출제한다. 고사시간은 60분이다.

면접고사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각 모집단위별 면접고사 과목 및 범위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는 ▲드로잉,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렌더링, 현대미술학과는 ▲색채소묘, 영상영화학과는 ▲스토리보드를 치른다. /한용수 기자

수학 나형, 11년 새 가장 어려웠다

수능 난이도 또 실패

국어 2005학번 이후 두 번째로 어려워 수학 가형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영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쉬워 탐구 전년대비 변별력 높아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나형이 최근 11년 사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 3년차로 치러진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7.43%로 전년보다는 쉬웠다. 지난해에 이어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일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우선 올해 수능 응시생은 48만4737명으로 재학생은 34만7765명(71.7%), 졸업생은 13만6972명(28.3%)이었다. 전년(53만220명)보다 4만5483명 크게 감소했으나, 졸업생 응시 비율은 전년(22.8%)에서 5.5% 증가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문과계열 학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국어 역시 쉽지 않아 문과는 수학나형을 잘 본 수험생이 유리하고, 이과는 국어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학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2010학년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국어

〈2019학년도 수능, 2020학년도 모의평가·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영역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국어	150	100	144	100	139	100	140	100	
수학	가형	133	100	140	100	135	100	134	100
	나형	139	100	145	100	142	100	149	100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이 올해는 수학나형 성적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학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전년(133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결국 수학 영역의 문이과별 난이도 불균형이 커진 셈으로, 이과이면서 문과수학인 수학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유불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어는 전년보다는 쉬웠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으로 2005학년도 현재 수능체제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어려웠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혔던 지난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이었었다.

절대평가 3년차로 치러진 영어영역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첫째 10.03%로 몰수능이었으나, 지난해 5.30%로 상대평가 수준으로 어려웠으나, 올해는 7.43%(3만5796명)가 1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쉬웠다.

탐구영역의 변별력은 전년대보다 높아졌고 사회탐구 중 경제과목(표준점수 최고점 72점)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고, 윤리와사상(표준점수 최고점 62점)이 가장 쉽게 출제됐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1(표준점수 최고점 74점)이 가

장 어려웠고, 물리1, 지구과학2(표준점수 최고점 66점)으로 가장 쉽게 출제됐다.

필수 응시 영역인 한국사 1등급 비율은 20.32%로 전년(36.52%)보다 어려웠다.

이처럼 올해 수능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영역별 난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출제기관의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가원은 국어영역 33번 문항 등 난이도 실패에 대해 사과했고, 수험생 일부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수험생들이 풀기 힘든 문제를 출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올해는 수학나형이 가장 어려운 불수능으로 확인됐고, 국어도 전년보다는 쉬웠지만 현 수능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문과는 수학이, 이과는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학에서 문이과 난이도 불균형이 매우 심해, 이과이면서 문과수학을 선택한 학생 유불리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호서대 2019 국방부 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호서대가 학군단 설치대학 국방부 평가에서 ‘2019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매년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예비장교 후보생(ROTC)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사항, 교육 여건, 후보생 자질

등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한다.

대학은 학군단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 구축, 후보생 장학금 지급, 적극적인 예산 지원, 군사학 수업 우선 편성 등의 지원을 통해 학업과 군사학을 병행하는 후보생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지원을 해왔다. /손현경 기자 son89@